

# 오늘의 세상을 구원할 범신론적 생명사상의 직접 표현

원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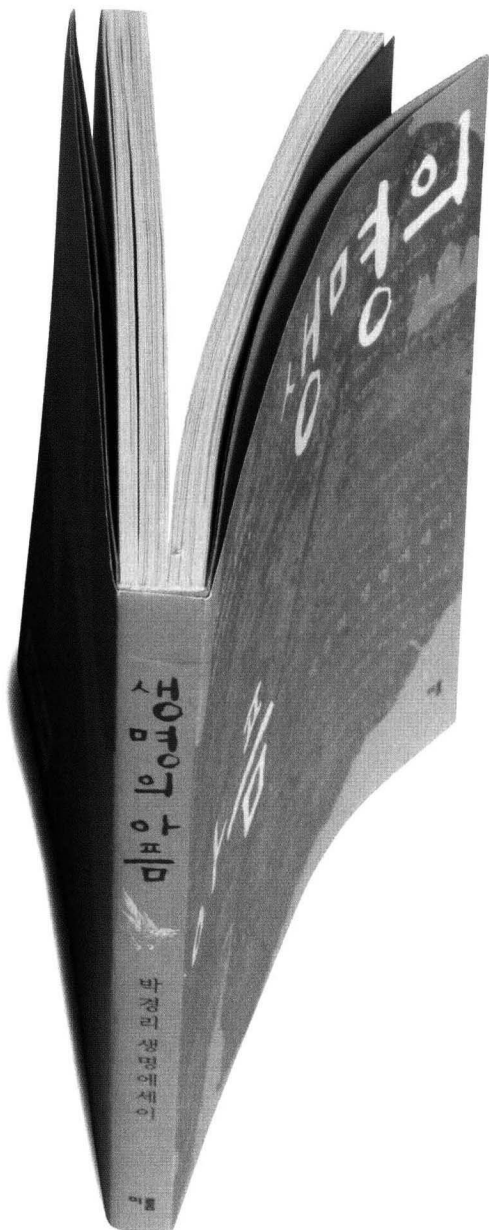
산문집 《생명의 아픔》은 소설에서 일가를 이룬 작가의 작품세계 전  
반을 관류하는 사상을 엿보는 즐거움과 함께, 세계와 우  
주라는 거대한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걱정하느라 두  
다리 뻗고 설 틈이 없는 대지의 어머니에 대하여 한없이  
죄송하고 면구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책이다.

이 어머니는 처음부터 어머니는 아니었다.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감나무 밑에서 놀며 하얀 감꽃을 주워 먹거나 바구니에  
담으며 시골 정취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십대 후  
반엔 진주에서 학교 다니며 여름방학마다 목탄 버스를  
타고 고향 가는 길에 이끼 낀 어느 비각 곁에 선 백일홍  
나무의 분홍빛 꽃을 보고 감탄하던 여학생이었다. <블  
레로>와 <페르시아의 시장> <아들의 여인> <이태리 기상  
곡>, 쇼팽의 <장송곡>과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같은  
음악 또한 나무와 더불어 그의 인생 복판에 세워진 두  
개의 축이면서 행복하고 아득한 추억의 상징물이었다.

이 여인은 결혼하고 생명을 잉태하여 낳아 기르며 어머니가 되는데,  
한 남자의 아내로 겪은 수난은 젖혀놓고서라도 어머니  
로서 걸어온 길은 여간 고단하고 참담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창경궁 맞은편 언덕의 서울대병원에서 아이 하나  
를 잃은 뒤에 이 어머니가 선택한 길은 비극의 극치이  
다. 너무 아프고 괴로우면 잊으려 하고 외면하려 하는  
게 보통사람들의 심사인데, 직장에서 정릉 집으로 돌아  
가는 길이 세 가지인데도 그는 굳이 그 병원 옆길로 다  
녔다. 아이를 잊지 못하여, 아니 잊기 위하여, 가슴의 대  
못이 보다 깊이 박히기를 원하여 그랬던 것이다.

그가 35년의 서울생활을 접고 원주로 이사했을 때, 어떤 이들은 오로  
지 글을 쓰기 위해서 조용한 도시를 찾아간 것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 당사자로서는 전혀 그러한 마음의 여유나 사  
치를 누릴 상황이 아니었다. 외동딸이 남편도 없이 손자  
를 데리고 시댁인 원주에서 쓸쓸히 살고 있었기에 울타  
리라도 되어주자고 간 것이었다. 얼마 전에 그는 딸과 함  
께 원주 한쪽 모퉁이에 있는 문막에 간 적이 있었다. 딸  
이 문막 지리를 훤히 알고 있기에 의아해하는 어머니에  
게 그 딸은 “원주 있을 때 세희 데리고 여기 강가에 가끔  
왔어요” 하고 대답한다. 그 시절엔 집 한 채 없는 허허벌  
판이었을 이곳에 무슨 까닭으로 어린 것 손잡고 왔을까.  
강물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떠올  
리면서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문학에 전 생애를 바쳐온 작가이면서도 그는 문학이 결코 인생만큼  
거룩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쪽으로 떠나



기 전에 먹이를 좀더 먹어 체력을 비축하고자 날개를 쳐서 밤새도록 호수에 어는 얼음을 깨는 철새들을 보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구나” 하고 탄식했듯이, 생활과 생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숭엄한 문제라고 여긴다. 어려서부터 그토록 좋아하던 감나무도 백일홍도 찾을 수 없는 춥고 적적한 군사도시에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무방비의 성곽이며 심하게 말하면 저주라는 사실을 그녀는 연일 뼈저리게 절감해야 했다. “여자가 글은 써서 뭘 해” “자식은 없어요? 왜 혼자 사는 거요” “참 안됐소. 근력은 좋으시우” 하는, 도저히 중요심 없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예사로 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 어머니를 잠시도 근심 걱정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일상사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대지의 모든 생명체를 마음대로 해쳐도 된다고 믿는 오만한 현대인의 기계문명 맹신이며, 세속적이고 물질에 집중된 욕망을 확대 재생산하여 쓰레기를 양산하고 자연이 설 자리를 낚아채 축소시키며 지구의 생명을 단축하려 드는 천박하고 난폭한 자본주의이며, 물자 절약운동을 펼치는 나라들에게 무역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미국이 대표하여 보여주는, 사

이 글을 쓴 원재길은 연세대 사학과 및 같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시인으로 활동하며 시집 《나는 눈물을 묻고 있는 자들》을 냈고, 전작 장편소설 《겉옷과 속옷》을 발표하며 소설가가 되었다. 장편 《모닥불을 밝히려》 《적들의 사랑 이야기》, 소설집 《벽에서 빠져나온 여자》 《달밤에 물레 만나다》, 시집 《나는 걷는다 물먹은 대지 위를》 등을 썼다.

실상 문화라고 부를 수도 없는 오늘날의 광포한 쾌락 지상주의 소비자문화이다.

자신을 취재하러 온 일본 잡지 편집자와 평론가 앞에서 “나는 철두철미 반일 작가요”하고 당당하게 밝히며 일본을 이웃으로 둔 것은 우리 민족의 불운이라고 말할 때, 연세대 원주캠퍼스 옆의 호수에 수상 골프장을 만들려는 계획을 필사적으로 저지할 때, 청계천 복원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때, 다국적 복합기업들의 세계 지배가 진정한 목표인 세계화와 핵무기 생산에 반대할 때, 우리는 창조정신과 문화와 생명을 보호하고 보전하려는 한 어머니의 도저한 투쟁을 통해서 파괴와 퇴폐와 비인간화와 생명경시 풍조에 저항하는 위대한 대지의 모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가 일본을 혐오하는 첫째 이유는 그 나라가 염기적인 그로테스크와 에로티시즘에 기반을 둔 어둡고 과멸적이며 잔인한 집단 성향을 드러내면서, 기술과 능력과 기능을 최우선하는 행동원리로 무장하여 서양을 등에 업고 동양을 배신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공연히 봉변이나 당하게 될까봐 말리는 가운데 수상 골프장 건설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철새들의 생존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청계천 복원 역시 자연스러운 수로를 되살려서 자본과 문명의 위력에 짓눌려 날로 심성이 피폐해져가는 초대형 도시 거주민들에게 숨통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다. 이 모든 노력은 생명 일체를 존중하고 만물의 호혜평등을 추구하는 정신문화만이 자원 고갈, 쓰레기 범람, 환경 퇴화로 공멸 위기에 처한 오늘의 지구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절박한 믿음에 바탕을 둔 범신론적인 생명사상의 직접 표현인 것이다.

과연 이 어머니께서 생전에 조금이라도 걱정에서 헤어나서 편안한 표정을 지을 날은 올 것인가. 누가 이 어머니의 시름을 덜어줄 것인가. 추적추적 가을비 내리는 날, 지금 대지의 어머니는 온 땅에 생기를 듬뿍 불어넣는 저 빗줄기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



《생명의 아픔》 박경리 지음 | 이룸 | 330쪽 | 값 12,000원